



Pastoral Letter

The Rt. Rev. Carlye J. Hughes, XI Bishop of Newark

To be read in all congregations of the diocese,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all members by email or other distribution.

2021년 3월 23일

여행의 동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아 두 건의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슬픔과 충격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계명의 부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46:1).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주십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어제 볼더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피해자들의 가족과 아시아 공동체, 인종을 대상으로 한 살인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을 향한 폭력적인 증오의 심화는 심각한 문제이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걱정은 이미 많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한 시기에 더욱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마틴루터킹 목사 기념일 행사와 압살롬 존스 기념일, 흑인 역사의 달이 지난 후 아머드 알버리, 브레오나 테일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교구는 제도적인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기념 행사가 끝난 후에 애틀란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덟 명이 사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딜라이나 애슐리 위안

박순정

폴 안드레 미셀스

현정 그랜트

샤오제 탄

김순자

다오유 핑

김영애

사망자 중 여섯 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이를 증오 범죄로 분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주민에 대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인종차별 공격의 맥락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작년에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 교구의 많은 신자들이 인종차별 인식 및 대응책 강화를 위해 성공회에서 개발한 다음의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커뮤니티 되기\(Becoming Beloved Community\)](#) 그리고 [신성한 땅\(Sacred Ground\)](#)입니다. 우리 교구 역시 우리 교구 역시 문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Namaste는 성공회의 인종차별 인식을 위한 강연 시리즈를 후원하였으며 교구 주민 단체가 저와 함께 6주 동안 연구를 함께 했으며 [인종적 조화](#)를 위한 생활 규칙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지 일년이 지난 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갖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중 일부가 공격을 받고 슬픔이나 공포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느낍니다.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여러분의 교구와 개인 기도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사망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신앙인과 개인으로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쉬운 모든 이들을 신께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지역사회 내 아시아인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하십시오. 이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원할 수도,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지와 관심을 담은 메모나 카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특히 자주 공격 대상이 되는 노인이나 여성을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 지역, 주, 국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아시아인 증오를 멈추는 일이 시급함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조치를 촉구하십시오.
- 여러분의 인종차별 반대 노력을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투자하고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십시오.
- 3월 30일 성스러운 화요일 오후 7시, 교구 [아시아 증오를 멈추기 위한 기도회\(Prayer Vigil for an End to Asian Hate\)](#)에 참석하십시오.

엄청난 공포와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는 인종차별 폭력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을 간청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대화와 지역사회에 참여하십시오. 교회 안팎의 아시아인

커뮤니티와 함께 일어서는 것이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지지를 보내는 강력한 방법이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장 12절).

영광과 평화,
Bishop Hughes